

도 협 소 시

제 2 차 이 사회 회의록

일 시 : 1970년 12월 22일 오후 3시

장 소 : 도협 사무국

참 석 : 김경일, 김덕훈, 김석순, 김윤태, 김종문, 김준근(代), 민윤기(代), 박계홍, 백린, 윤구호, 이봉순, 이재철, 이홍구, 장일세, 정병완, 조재후, 최근만, 최창균(위임) 권재식, 권태식, 박승하, 이문원 전재우, 최도철, 최용환, 한창영, (가나다순)

안건 : 1. 사무국 보고

2. 경리현황 보고
3. 사업진첩 보고
4. 회비 인상에 관한 일
5. 기타

성원보고 : 이사 34명 중 참석 18, 위임 9, 총 27명으로 성원이 됨을 보고하다.

최근만(사무국장) : 회장님께서 급한 일이 있으셔서 좀 늦으실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 임시의장을 선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일(이사) : 임시의장으로 우리 도서관의 선배이신 이봉순 이사님을 추천합니다.

—일동 만장일치로 이봉순 이사를 임시의장으로 추대하다—

이봉순(이사) : 회장님께서 참석하실 때까지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사무국 보고

박대권(총무부장) :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다.

- 1) 문교부 주관, 본 협회와 마을문고본부 공동 주최로 “도서관 및 마을문고 지도자 세미너” 개최 (12. 7~9, 3일간 100명 참석)
- 2) 국고보조예산 총서발간 사업비증 원고료 100,000 원을 문교부 방침으로 세미너 경비로 전용.
- 3) 1971년도 국고보조 8,500,000원으로 확정 국회통과(12. 19)
- 4) 사무국장 미 국무성초청으로 미국 및 구라파의 교육계 및 도서관계 시찰하고 귀국(12. 7)
- 5) 백린이사 하바드대학에서 연구마치고 귀국(9. 5)
- 6) 이춘희 전문위원장 도미 (10. 6)
- 7) 박계홍 이사 자료 수집차 도미후 귀국(11. 2)

- 8) 김경일, 권재식, 이홍구, 박치욱, 박대권 제씨 일본 교육계 및 도서관계 시찰하고 귀국(9. 18)
- 9) 정박문(외대도서관) 하와이 대학에서 도서관학 연구하고 귀국
- 10) 강주진 회장 및 이봉순 이사 호주에서 개최되는 동양학자 대회에 참가차 출국예정 (1. 4)
- 11) 장일세 이사 및 인천교대 도서관장 이일철 교수 풀롬보 계획에 의해 호주정부가 주최하는 도서관 운영 및 정보과학에 관한 세미너(2月8日~4月30日)에 참석하기 위하여 호주로 출국 예정(2월중)
- 12) 한국도서관학회 제1차 학술 발표회(11. 7)
- 13) 제 회의
 - 가. 제 4 차 상무이사회 (9. 11)
 - 나. 제 1 차 분위장회의 (9. 2)
 - 다. 제 3 차 행정분위 (12. 15)
 - 제 4 차 행정분위 (12. 18)
 - 라. 제 9 차 선정분위 (9. 29)
 - 제 10차 선정분위 (10. 29)
 - 제 11차 선정분위 (11. 26)
 - 마. 제 1 차 분류분위 (12. 13)
 - 바. 제 1 차 목록분위 (12. 16)
 - 사. 제 1 차 용어분위 (11. 20)
 - 아. 제 4 차 서지사업회의 (8. 11)
 - 제 5 차 서지사업회의 (9. 4)

의장(이봉순) :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에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안건 2. 경리 현황 보고

박대권(총무부장) :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11월30일 현재의 경리 현황을 보고하다.

1) 예산총액	18,407,003
자 체	10,307,003
보 조	8,100,000
2) 세입액	15,385,069
자 체	7,528,069
보 조	7,857,000
(예산잔액)	3,021,934
자 체	2,778,934
보 조	243,000
3) 세출액	14,431,588
자 체	7,447,412
보 조	6,984,176
(예산잔액)	3,975,415
자 체	2,859,591
보 조	1,115,824
4) 현금잔액	953,481
자 체	80,657

통 장	45,858
진 체	29,971
현 금	4,828
보조 통장	872,824
조재후(이사)	경리현황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에 있고 얼마 뒤에는 감사가 있을 것이니 보고된 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이봉순)	다른 이사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동 동의에 재정하고 보고된 대로 받아 들이기로 결의함—
의장(이봉순)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3. 사업 진첩 보고.
박대권(총무부장)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다.
보조사업	
1) 도서주간 행사	
9. 24~30 일주일간 행사완료	
포스터 및 표어 제작하여 배부, 각종 매스콤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동 기간중 강연회와 “제 1회 한국잡지 전시회”를 개최	
2) 도서관 통계사업	
한국도서관통계(1970) 1,000부 인쇄 배부 완료	
3) 도협월보 발행사업	
총 12권 24,000부 인쇄 배부 완료	
4) 한국서지사업	
“한국참고도서해제목록” 원고 70% 탈고	
5) 도서관학총서 및 번역총서 발간사업	
고서분류목록법(상) 1,000부 발행완료	
고서분류목록법(하) 1,000부 발행완료	
양서목록법 1,000부 발행완료	
발전도상국의 도서판 1,000부 발행완료	
6) 선정도서사업	
1,026종 선정하여 월보에 게재	
<자체사업>	
1) 배부함 사업	
6회에 걸쳐 회원 도서관에 배부.	
2) 위원회 사업	
각 분과위원회별로 본회 간행물 검토 수정 중	
3) 지구협의회 육성사업	
경기, 전북, 부산, 전남 등 지구협의회에 사업보조	
4) 표창사업	
회원 도서관에 추천의뢰하여 접수 중	
5) 기타사업	
“전국도서관실태분석보고서” 원고 탈고	
6) 적립금 관계	
가. 1968년 2월에 가입하였든 상호 부금 500,000	

원이 금년 10월 13일 완불로 581,000원을 수령하여 신탁은행에(18개월) 재신탁함.

(1972년 4월 12일에 821,771원 수령)

나. 금년 1월부터 1,000,000원 상호부금 적금중
의장(이봉순): 지금까지 보고된 사항중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린(이사): 배부함제도에 있어서 Title page에 “기증자료” 표시 도장을 찍어서 보내오고 있는데 정리하는데 미관상 좋지 않고 하니 뒷면에다 찍어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철(이사): 기관지 편집상에 있어 도협소식 난에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을 자세히 실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만(사무국장): 앞으로 배부되는 도서는 백이사님 말씀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협월보”는 명실공히 우리 나라 도서관계의 대표적인 기관지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도서관계 소식을 신속히 전해드리고, 내용이나 체제의 개선을 위해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편집방침을 계속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일(이사): 기관지의 편집관계는 “편집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좀 더 나은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동 친성하다—

—사업진첩에 대하여 장시간 토의하다가 보고된 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의함—

의장(이봉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4. 회비 인상에 관한일

최근만(사무국장):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번에 행정분위에서 단체회비 및 등급을 조정 하였습니다. 지금 회비의 인상문제는 지난 총회에서 인상을 결의하였고 예수 및 등급의 조정관계를 이사회에 다 과제로 넘겼던 것입니다. 현재의 급수와 회비는 약 6년전에 조정된 것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조정한 안은 우선은 회원 도서관에 다소 무리가 있겠으나 71년도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72년도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니 이번에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2년 후에나 시행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이나 물가의 변화등을 예상한다면 그렇게 무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정을 안해도 2, 3년 후에는 아무래도 인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재후(이사): 유인물에 보면 학교도서관의 등급을 시도별로 구별하였는데 그것 보다는 학급수에 비례

해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읍니다.

장일세(이사) : 미국의 경우에는 장서수와 도서구입비에 따라 회비의 액수가 결정되는 것 같읍니다. 그리고 재생각으로는 현재의 안대로 하면 다소 물의가 있을 것 같읍니다. 그러니 행정분위를 제 소집하여 전반적인 조정을 하여 다음 이사회 때 논의 하였으면 좋겠읍니다.

박계홍(이사) : 다음 이사회 때에는 행정분위장이 새로 조정된 안을 가지고 나와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 설명을 들은 후 논의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읍니다.

김윤태(이사) :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관종별로 동일관 종내에서 등급을 나누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읍니다.

의장(이봉순) : 시간이 오래 흐른 것 같으니 제가 종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사님들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회원등급 조정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 행정분위를 다시 소집해서 학교를 지역별 보다는 학급수의 비례로 한다든지 또는 각 관종마다 등급을 각각 정할 수도 있는 것이니 다시 조종해서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되 행정분위장이 이사회에 출석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읍니다. 이대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동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의장(이봉순) : 그러면 회비 인상 전에 대해서는 행정분위에서 충분히 제 검토하여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안건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안건 5. 기타

최창규(이사)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서도 사서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데 다른 도서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조처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읍니다. 개인적으로 여려분께 시도해 보지만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우 어려운 형편이드군요.

김윤태(이사) : 저희 군관계에서는 사서직이 모두 군속으로 되어 있는데 참모총장선까지는 재가를 얻었으나 국방부장관의 재가를 얻어야 하는 일이 남아있읍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보다 사무국에서 특별히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세(이사) : 국립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만 수당을 받도록 할려고 했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도서관에서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국의 전의만으로는 어려운 일이고 각급 도서관에서 맨투맨으로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만(사무국장) : 도서관법이 하루 속히 개정되서 국·공립은 물론 사립의 도서관에서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만 현재로서 이 수당문제는 경제기획원,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하므로 다른 적급의 수당문제와 병행해서 시도하는 것이 꼭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서직 수당만은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난관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수당을 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사무국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관계에 계신 여러분이 도서관 P.R.을 관계요로와 주위에 하여 도서관을 인식시키는 것도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의장(이봉순) : 사서직 수당 문제는 우리 도서관인 전체의 문제이니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힘써 밀고 나가기로 하고, 이번에 미국에 다녀오신 최국장님의 귀국 보고를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만(사무국장) : 먼저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 드리지 못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지난 10월 6일에 떠나 미국내의 15개 도시의 공공도서관, 대학 도서관 특수 및 연구기관 도서관, 학교 및 도서관 관계 단체와 재단을 방문 견학하고, 많은 도서관에 지도자들을 만나 양국간의 인사교류, 문현교환, 서지사업 등에 대한 협의를 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영국, 불란서, 이태리, 텐마크, 스위스, 카이로, 뉴델리, 방콕, 베트남, 동경, 홍콩, 대만 등지의 도서관을 돌아보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말씀 드리기로 하고 간단히 귀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훈(이사) : 현재 4개대학의 졸업생들의 직업 알선을 협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이봉순) : 저도 교육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학과 졸업률의 취업을 위해 대학 자체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님 여러분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길을 알선해 주시고 적극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취업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다—

의장(이봉순) :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만 끝이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 2차 분과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1970년 12월 28일 오후 5시

장 소 : 도협 사무국

참 석 : 이정호, 이철규, 임종순, 정필모, 천혜봉, 최근만(가나다순)

- 안건 :**
1. 각 분과위원회 보고
 2. 1971년도 사업계획 검토
 3. 기타

성원보고 : 총원 8명 중 위원장님과 교육조사분위장님이 못나오셨습니다. 성원이 됨을 보고합니다.

최근만(사무국장) : 이 춘희 전문위원장께서 미국에 가 계신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임시의장을 선출해 주십시오.

이정호(용어분위장) : 전반적인 움직임도 잘 알고 계시는 최국장님께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안건 1. 각 분과위원회 보고

임종순(선정분위장) : 선정분과위원회가 그동안 활동한 것을 보고 드립니다. 선정분위에서는 그간 11차례 결쳐 회의를 하여 1,000 Title을 선정, 월보에 게재하였습니다. 71년에는 지난 69년도 선정분과 70년도 선정분을 합쳐 “선정도서목록IV”를 발간하기로 하고 현재 편집중에 있습니다.

정필모(목록분위장) : 먼저 금년도의 목록분위 활동이 미진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목록분위에서는 기왕에 출판된 목록규칙의 수정을 위한 회합을 가졌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얻지 못하고 수정안만을 일부 검토하다가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목록 분위의 활동은 71년도에 위원을 다시 구성하여 추진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호(용어분위장) : 용어분과위원회에서도 기왕에 출판된 “도서관용어집”을 수정하기 위하여 수차례 결쳐 회합을 갖고 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200여개의 새로운 용어를 조사하여 월보에 게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월보에 게재된 용어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들을 다시 종합해서 71년도에는 증보판 용어집을 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철규(행정분위장) : 저희 행정분위에서는 그때 필요한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도서관법의 개정문제와 장서폐기 규정인데 장서폐기 규정은 윤여택 위원이 현재 겸임중이고 도서관법 개정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천혜봉(분류분위장) : 저희 분위에서는 분류표를 수정하기 위하여 작년에 분담연구를 시작하고 금년에는 수정원고지를 배부하여 수정원고를 받기로 하였으나 원고지 배부이후 회의를 갖지 못하고 11월에 모임을 가졌으나 아직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신년도에 가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만(편집분위장) : 편집분위에서는 그동안 3차례 결쳐 회의를 갖고 기관지의 편집방침과 체재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69년까지는 1년에 10권 발행하던 것을 매달 발행하여 그때 회원과 관계기관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신년도에도 더욱 노력하여 보다 새롭고 친밀감 있는 기관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건 2. 1971년도 사업계획 검토.

박대권(총무부장) : 1971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년도에는 금년과 사업내용이 같아질 것 같습니다. 지난 예산 국회에서 850만원이 신년도 국고 보조금으로 확정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71년도 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한가지 추가될 것은 선정도서 사업중에 “선정도서목록TV(1969~1970)”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7일부터 9일 까지 3일간 중앙교육행정훈련원에서 마을문고와 저희 협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 성과가 커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이 사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종순(선정분위장) : 71년도 예산이 금년과 같으니 사업도 변동이 없을 것 같군요. 그렇지만 신년도에는 좀더 힘을 기울여 금년보다 더욱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 같읍니다.

천혜봉(분류분위장) : 제가 알기로는 신년도에 임원개선이 있고 또 전문위원회의 위원도 새로 구성하여야 하는 줄 압니다. 지난 2년동안 느낀 바로는 위원들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성의가 부족해지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새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이점을 감안하여 위원을 위촉하여야 좀 더 박력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읍니다.

최근만(사무국장) : 또 하나의 문제는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여러분께서도 좋은 분이 위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현안문제에 대하여 토의하다—

최근만(사무국장) : 오늘 전문위원장께서도 안계신데 여분 위원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보다 나은 도서관계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제2차 분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선정분위 회의록

일 시 : 1970년 12월 28일 5시 30분

장 소 : 도협 사무국

참 석 : 임종순, 손정표, 이택준

결의사항 : 71년도 2월호 월보에 게재할 원고를 검토·선정함.

사 무 국 일 지

- 12월 22일 제2차 이사회 개최
 28일 UNESCO, 美 대사관 방문(박부장)
 제 2 차 분위장 회의 개최
 제12차 선정분과위원회 개최
 29일 사무국장 문교부, 경제기획원 방문.
 30일 문교부 사회교육과 직원에 감사패 수여
 31일 국회도서관 방문(국장, 박부장)

1971년

- 1월 4일 시무식
 강주진 회장 호주로 떠남(국장, 박부장
 출영)
 12일 미대사관 방문(박부장)

신 입 회 원

〈단체회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도서관

임목육종연구소

대전신학대학

〈개인회원〉

손연옥(대구미국공보원도서관)

나자윤(캐나다 온타리오)

참 고 자 료

- T.L.A Bulletin (1970. vol. 14 No. 4) T.L.A.
 ○The Australian Library Journal (1970. vol. 19 No.
 10) Australian Library Association.
 ○Information Bulletin (1970 vol. 29 No. 43, 44)
 Library of Congress

- College & Research Libraries (1970. vol. 31. No. 6)
 ○American Libraries (1970. 11) A.L.A.
 ○Das Schweizer Buch (1970. A. 21, 22)
 ○Canadian Library Journal (1970. vol. 27, No. 5)
 Canadian Library Association
 ○米書だより (1970. 208, 209, 210, 211, 212號) 米國
 大使館廣報文化局報道出版部
 ○親和(204)日韓親和會
 ○圖書館雜誌(1971. 1)日本圖書館協會
 ○香港圖書館協會學報(1969. No. 1) Hong Kong Lib-
 rary Association
 ○출판문화(1970. 12)출판문화협회

〈배부의뢰 도서 목록〉

경제 논집	175	한국경제연구소
역서	476	중앙관상대
한국화기발달사	190	육사
조사월보(11월)	200	한국은행 도서실
통계월보(12월)	200	"
경제통계연보(1969)	50	"
Review of Korean Economy	50	"
20th Annual Report	50	"
원자력연구논문집	102	원력청
원자력연보(1968)	10	원자력청
원자력연구논문집	219	"
연구년보	12	"
원자력연구소회보	154	"
월간운수	63	한국교통공론사
제주도(46호)	80	제주도청
지방행정	80	내무부
Economic Review	195	서울대학교
요업회지	51	대한요업총협회
체격기준조사	50	과학기술처

장 학 기 금 모 금 현 황

(1971. 1. 20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도서실직원 일동	14,000원	효성 여자대학 도서관	4,000원
감리교 대전신학교 도서관	4,000원	가톨릭대학 신학부 도서관	4,000원
평택 종합고등학교 도서관	4,000원	특허국 도서실	4,000원
군산 시립도서관	4,000원		
원주 대학교도서관	4,000원		
경상남도 교육연구원 도서실	4,000원	소 계	46,000원
		전월 누계	618,251원
		총 계	664,251원

뉴 우 스

도협 정기총회 개최(제17차)

본 협회 제17차 정기총회가 오는 2월 22~23일 양일간 교육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개선을 비롯하여 1970년도 사업실적보고, 결산보고, 회계감사보고 및 1971년도 예산안, 사업계획 등이 심의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23일 개회식에서는 제3회 도서관상(공적상, 근속상)이 시상될 것이라고 하며 관계발전에 여려모로 협조하고 공로를 끼친 분들에 대한 감사장 수여식도 아울러 있을 예정이다.

강주진 회장 도호

이봉순 이사와 함께

본회 강주진 회장과 이봉순이사(이대도서관장)가 지난 1월 4일 오전 10시 KAL기편으로 호주로 떠났다.

강회장과 이이사는 1월 6일부터 12일까지 호주의 Canberra에서 개최되는 제28차 동양학자들의 국제학술회의(International Congress of Orientalists)에 참석하기 위하여 떠난 것인데 회의를 마치고 태평양 및 아시아지역 도서관체를 시찰하고 강회장은 1월 23일에 귀국하였고 이봉순 이사는 2월 초에 귀국할 것이라고 한다.

장일세 이사 渡濤

본 협회 장일세 이사(국립중앙도서관 사서과장)가 지난 1월 13일 오전 10시 KAL기편으로 渡濤하였다.

장이사는 호주정부가 주최하는 도서관운영 및 정보과학(Library Administration and Information Science)에 관한 세미너에 참석하기 위해 渡濤한 것인데 이 일은 쿨롬보제회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동 회의는 오는 2월 8일부터 시드니, 켄베리, 멜보른, 퍼스 등 4개지역에서 개최될 것이라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일철선생(인천교육대학 도서관장)도 참석(2월 5일 출발예정)한다고 한다. 또한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는 Singapore, Malaysia, Bangkok, Manila, Hong Kong, Taipei, Tokyo 등지의 도서관체를 돌아보고 오는 4월 말경에 귀국할 것이라고 한다.

이승주 선생 뉴질랜드로 출발

본 협회 전문위원회 행정분과위원인 이승주(국립중앙도서관)선생이 지난 1월 9일 North West기 편으로 New Zealand로 항해 출발했다.

이 선생은 뉴질랜드의 Victoria대학내의 Wellington Library School에서 도서관행정 연구 및 견학을 위해 약 6개월 예정으로 New Zealand ASPAC의 장학기금으로 떠난 것이라고 한다.

KIST 직원들이 장학기금 성금

지난 69년부터 본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기금 모금에 각급 도서관에서 일하는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해 12월 31일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어려운 봉급생활을 무릅쓰고 성금 14,000원을 모금하여 박제홍(도서실장)선생을 통하여 협회에 전달하였다.

본 회에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회원과 본회 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

도서관학 대학원과정 신설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사서교육(도서관학)전공 과정이 문교부로 부터 인가를 받아 오는 3월부터 개강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에 신설 개강하게 되는 본 과정은 보다 높은 차원의 도서관학문과 복잡한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행한 일이며, 앞으로의 도서관계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석사과정(정원 30명)과 연구과정(약간명)이 병설될 것이라 한다.

동계 농촌문고 활동

성균관대학교 도서관학과에서는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17명의 대원이 지난 1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에 걸쳐 충남 서산군 원북면 신두리에서 문고활동을 벌였다고 한다.

이번 활동은 문고를 중심으로 부녀자봉사, 어린이봉사, 의료, 위생봉사도 하였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방학을 이용하여 “공공도서관 운동의 실험”의 일환으로 계속 전개하여 나갈 것이라고 한다.

Jay E. Daily교수 내한

미국 Pittsburgh대학교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의 Jay E. Daily교수가 지난 1월 18일 본 협회를 방문하였다.

Daily 교수는 각국의 도서관학과 도서관학과를 시찰하는 길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일주일간 체한하면서 국립도서관과 4개대학 도서관학과 및 도서관과 KORS TIC, KIST의 도서관을 방문하고 24일 대만(대북)으로 떠났다.

유진·우씨 내한

미국 Harvard 대학교의 Harvard-Yenching학회 도서관장으로 재직중인 중국계 미국인 유진·우씨가 한국도서관계를 돌아보기 위하여 지난 1월 24일 내한하여 26일에 본협회를 방문하였다.

씨는 호주에서 열린 동양학자회의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곳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인데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의 규장각도서와 국립, 국회도서관 등을 돌아보고 27일 미국으로 돌아 갔다.

IFLA 사무총장 경질

세계도서관협회연맹(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사무총장이 지난 해 12월 30일자로 경질되었다고 한다.

신임 사무총장에는 Margreet Wijnstroom여사가 피선되었다고 하는데 Margreet여사는 화란도서관협회 이사로서 13년간 봉사해 온 유능한 사서이며 법률전문가라고 한다.

동 사무총장의 인준은 오는 2월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하게 되는데 Margreet여사의 인준은 거의 확실시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IFLA사무국의 주소가 전임 사무총장 Anthony Thompson씨(8년 재임)의 소속이던 영국의 Sevenoaks에서 Hofweg 7, The Hague, Netherlands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한편 금년도 제37차 총회가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영국의 리버풀 시립중앙도서관과 St. George Hall에서 개최된다고 하는데 이번 총회의 주제는 "The Organization of the Library Profession"이라고 하며 동 기간에는 각국의 "도서관협회"에 대한 특별전시회도 갖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해 외 소식>

UDC와 기계화에 관한 세미나 개최

국제도큐멘테이션 연맹(FID)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5일까지 프랑크프르트에서 제2회 UDC와 기계화 정보시스템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14개국에서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자계산기로 작성한 서지나 목록에 UDC 응용, 정보선택제공, 정보검색(IR) 방식 등 흥미있는 내용이 보고되었고, 또한 디소어러스(Thesaurus), 디스크립터리스트(Descriptor List), 퀵(KW C) 및 퀵(KWOK) 형태의 색인과 관련하여 UDC의 역할에 관한 논문발표와 토의가 있었다고 한다.

(FID News Bull. 20 (7) 1970)

海外學術雜誌購讀案內

KOP Subscription Guide

⇒弊社는 国内唯一의 썬스크립션: 애이전시로서 文化公報部의 許可(第50号)를 얻어 外國定期刊行物 予約業務를 開拓하여 왔으며 数年間 유네스코 韓國委員會의 傘下 輸入代行機関입니다.

对內적으로는 여러가지 惡條件를 克服하고 業務擴張에 따른 能率的인 事務体制를 이룩하였으며 对外적으로는 世界의 坊坊曲曲을 카바하는 屈指의 代理店과 巨大한 出版社 1,500餘社와 業務를 提携. 巨大한 海外 썬스크립션, 네트워크를 形成하므로써 時時刻刻으로 變化하는 人文, 科學技術情報의 供給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數量의 多寡를 不問하고 購讀者 諸位의 썬스크립션 인포메이션 리퀘스트에 応하고 있으니 大量은 利用 있으시기 바랍니다. 연혁 즉시 案內書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日本書籍販賣案내《

⇒今般 弊社는 日本 丸善株式会社와 代理店 계약을 체결하고 建築設計資料集成 썬스크립션을 独占 販売하고 있으니 고객 제위의 大量은 利用 있으시기 바랍니다.

書名	著者名	出版社名	日価
建築設計資料集成 第一卷	丸善 編	丸 善	3,000
建築設計資料集成 第二卷	丸善 編	丸 善	3,500
建築設計資料集成 第三卷	丸善 編	丸 善	3,500
建築設計資料集成 第四卷	丸善 編	丸 善	3,700
建築設計資料集成 第五卷	丸善 編	出 版 準備中	
建築設計資料集成 第六卷	丸善 編	丸 善	4,800

(기타 建築·土木關係書籍 多量 販売中)

丸 善 株 式 會 社

韓國總代理店



韓國海外出版物株式會社

서울特別市 鐘路1街 71 永韓빌딩

雜誌 業務部 74-3783

書籍 販売部 73-4262

정기 간행물 표제약어 국제목록 출판

네이션스코와 ICSU(International Council of Scientific Union)의 후원으로 UNISIST(세계 과학정보 시스템—World Science Information System—의 뜻이다. 그러나 UNISIT는 약자를 조합한 Acronym이나 생략형이 아닌 고유명사임)와 ICSU에서 “International List of Periodical Title Word Abbreviations”를 출판했다. 이 목록에는 7,000여의 단어가 약어와 같이 수록된 것으로 1966년 이래 National Clearinghouse for Periodical Title word Abbreviations of the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Standards Committee에서 간행하여온 단어 약어 목록에 준거한 것이다.

<구입처>

ICSU AB Secretariat

17 rue Mirabeau

75—Paris 16e-France

또는

Chemical Abstracts Service

Marketing Department

University, Post Office

Columbus, Ohio 43210, U.S.A.

\$ 4.50

(ICSU AB News Release 1970. 11. 23)

국제십진분류법 상관색인 출판

일본도큐멘테이션협회에서는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국제십진분류법(UDC)의 상관색인을 출판했다. 이것은 일본어 간략 제3판(1967년)에 준거하여 약 5만의 항목을 수록했으며 각 항목마다 해당 UDC 기호가 표시되어 있다. 또한 본서에는 일본어 간략 제3판 발행후 개정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구입처>

日本ドクメンテーション協会

東京都文京區小石川 2—5—7

1971 년 1월 25일 인쇄

1971 년 1월 31일 발행

<월간> 도 협 월 보

제12권 제 2 호

발 행 인	강 주 진
편 집 인	최 균 만

330면 5,500원(일화) (회원 5,000원)

(日本ドクメンテーション協会 出版物 案内)

화학분야의 새로운 초록지

독일의 Gesellschaft Deutscher Farbenfabriken Bayer AG가 Chemischer Informationsdienst의 출판을 시작했다. 이 초록지에는 약 400종의 화학분야 정기 간행물에서 새롭고 중요한 기사를 2종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하나는 유기화학 분야인 Organische Chemie로 연간 20,000건을, 나머지는 무기화학 및 물리화학인 Anorganische und Physikalische Chemie로 연간 15,000건의 논문을 소개한다. 초록은 원문이 발표된지 2개월이면 출판된다.

<구입처>

Verlag Chemie GmbH

694 Weinheim/Bergstrasse

Pappelallee 3, Postfach 129/149

Germany

(Bibl. Docum. Termin 10 (119) 1970)

자동화 독물(毒物) 정보센터 설치

미국 Kansas City에 있는 Childrens Mercy Hospital에 자동화된 독물 정보센터가 설치되었다. 여기에 사용되는 전자계산기는 Honeywell Model 200으로, 어린이에 관한 각종 독물 정보를 신속히 검색하고 있다. 잠재적으로 유독한 의약품, 가정용품, 화학품 등 약 5,000종의 정보가 축적되어 있으며 병원의 구급센터와 텔레타이프가 연결되어 있어 어린아이에게 감염된 물질에 관한 정보를 4초 이내에 보내준다. 출력정보는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화학품 목록, 독성을 갖고 있는 화학품의 확인법, 독성의 정도를 표시한 코드, 치료법 등이다.

(Bibl. Docum. Termin 10 (120) 1970)

(提供 S.C.)

발행소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서울특별시중구소공동6 (국립도서관 구내)

전 화 (22) 4864 · 5613

전 체 서 울 3753

사 서 함 서울국제 2041

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라—29

인쇄인 삼성인쇄주식회사